



미 증시, 부채한도 협상 난항, 연준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24 일(수) 미국 증시는 미 부채한도 협상 난항,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 예상치 상회한 영국 4 월 CPI 로 인한 유로존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락 마감. (다우 -0.77%, S&P500 -0.73%, 나스닥 -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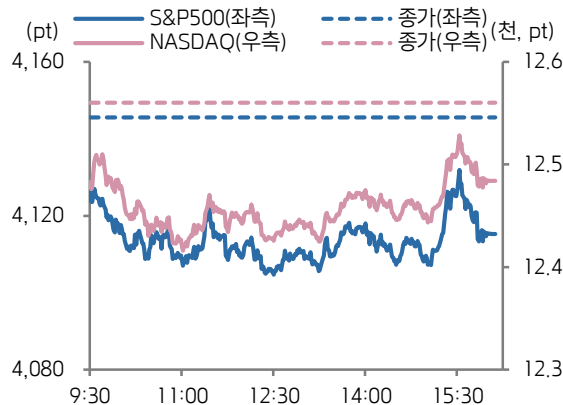
5 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내에서도 금리 경로에 대해 뚜렷한 의견차를 보임. 물가 상승률이 아직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 몇몇(several) 참석자들은 "경제가 현재 전망대로 전개된다면 이번 회의 이후에 추가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일부(some) 다른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향후 회의에서 추가 정책 강화가 타당할 것 같다"고 언급. 또한 6 월 이후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를 '금리인하의 신호' 또는 '추가 인상 배제'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

또한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앞으로 3 주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신용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6 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

24 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재개했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 부채한도를 올린 뒤 지출 문제를 논의하자는 백악관과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 열린 재무장관은 이날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심지어 합의가 이뤄져도 상당한 금융시장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 "2011 년 미국 국채가 실제로 강등됐고, 주식시장은 거의 20% 하락 충격을 받았다"고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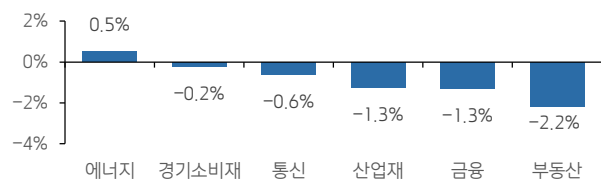
에너지(+0.5%) 업종만이 강세를 보인가운데, 경기소비재(-0.2%), 통신(-0.6%)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부동산(-2.2%), 금융(-1.3%), 산업재(-1.3%)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음. 팩웨스트(-2.44%)는 부동산 대출 관련 사업 매각계약을 체결 이후 개장 전 거래에서 6% 상승했으나 장중 하락전환. 엔비디아(-0.49%)는 1 분기 실적에서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한 71.9 억 달러,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20.4 억 달러로 양호한 실적 발표.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칩이 포함되는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4% 상승, AI 칩 수요 급등에 따른 2분기 매출 가이드런스 상향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26%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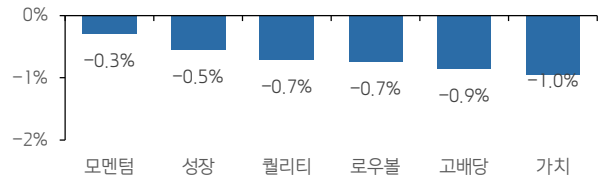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67.45	+0%	USD/KRW	1,317.54	+0.39%
코스피 200	336.49	-0.18%	달러 지수	103.89	+0.39%
코스닥	855.46	-0.43%	EUR/USD	1.08	+0.03%
코스닥 150	1,295.62	-0.7%	USD/CNH	7.06	-0.03%
S&P500	4,115.24	-0.73%	USD/JPY	139.41	-0.04%
NASDAQ	12,484.16	-0.61%	채권시장		
다우	32,799.92	-0.77%	국고채 3년	3.386	+0.6bp
VIX	20.03	+8.09%	국고채 10년	3.507	+2.7bp
러셀 2000	1,767.00	-1.16%	미국 국채 2년	4.376	+6bp
필라. 반도체	3,124.09	-1.68%	미국 국채 10년	3.742	+5bp
다우 운송	13,695.45	-1.52%	미국 국채 30년	3.986	+3.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63.74	-1.81%	WTI	74.34	+1.96%
MSCI 전세계 지수	644.84	-0.97%	브렌트유	78.36	+1.98%
MSCI DM 지수	2,788.82	-1%	금	1983.1	-0.49%
MSCI EM 지수	970.90	-0.79%	은	23.12	-1.53%
MSCI 한국 ETF	62.35	+0%	구리	355.35	-2.4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7.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점증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한은의 금통위 결과 3. 엔비디아의 시간외 추가 폭등이 국내 AI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협상 기대 강화 → 기대 약화 → 협상 진전 → 협상 후퇴”의 루프에 빠져있는 부채한도 문제가 증시의 단기 변수로 자리잡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증시 방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음. 이와 관련해 시장 참여자들과 연준 인사들은 연말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여부를 놓고 괴리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6 월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

전일 공개된 5 월 FOMC 의사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이번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은 경기 전망을 고려했을 때 5 월 회의 이후 추가 정책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다른 일부 위원들은 2% 인플레이션으로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더 나아가, 월러 연준 이사가 향후 3 주 동안 발표 예정인 주요 데이터, 신용 여건 변화들이 연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책 유연성을 강조한 상황. 또 물가가 2%대로 내려간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주식시장에 부담스러운 요인.

이처럼 1) 의사록 상 연준 위원들의 의견 충돌, 2)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 발언 등의 조합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a)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6 월 금리 동결, 즉 5 월 인상이 마지막)”, b)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6 월 동결 이후 7 월 인상)”, c) “금리인상 사이클 지속(6 월 인상 후 추가 인상)”이라는 여러 시나리오를 이끌어내고 있는 실정. Fedwatch 에서는 6 월 기준금리 상단(현 5.25%)이 5.5%일 확률이 33%대, 7 월 기준금리 상단이 5.5%일 확률이 46%대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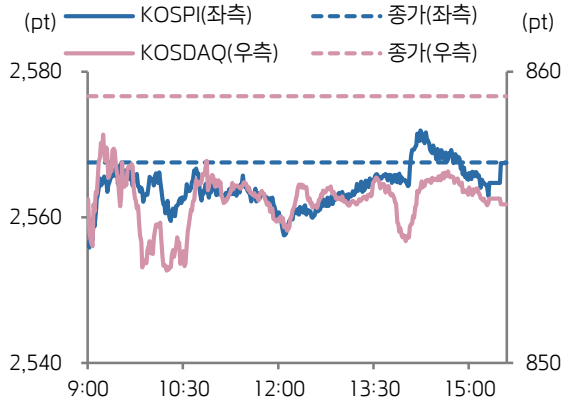
월러 연준 이사가 지적했듯이 향후 3주간 입수되는 데이터(PCE, CPI, 고용 등)가 6월 FOMC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 당사는 “5 월 FOMC 부로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 6 월 매파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동결”이라는 a 시나리오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함. c(인상)의 시나리오가 증시 입장에서 최악의 재료이지만 이는 가장 확률 낮은 시나리오. 사실상 6 월 FOMC 전까지는 a(종료)와 b(중단)의 시나리오간 우위 다툼이 벌어지면서 증시 변동성은 종종 출현하겠지만, a 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 소식, 중국의 한한령 우려, 차익실현 물량 등을 장중 내내 소화해가면서 약보합 마감(코스피 0.0%, 코스닥 -0.4%).

금일에는 5 월 FOMC 의사록 부담, 부채한도 불확실성 등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으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한은의 금통위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에서 관전 포인트는 연준처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어느정도 열어두고 같지가 될 것. 금통위 결과가 증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환율 경로를 통해서 외국인 수급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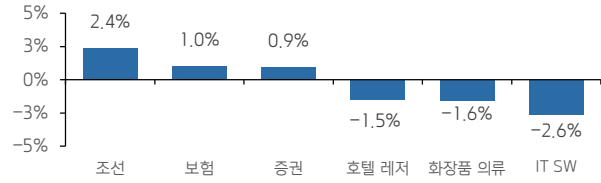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AI, 반도체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0.5%)가 AI 관련 사업 호조 등에 힘입어 1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1Q EPS \$1.09 vs 컨센 \$0.92), 2 분기 가이던스 서프라이즈(2Q 매출 110억달러 전망 vs 컨센 7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25%내외 폭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영향으로 AMD 도 시간외에서 9%대, 마이크론도 시간외에서 3%대 강세를 시현 중).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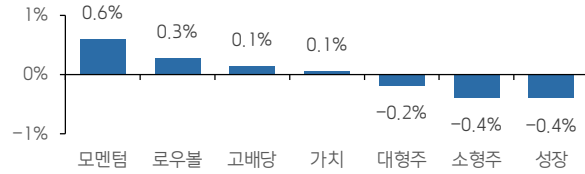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